

<b>2026년 7월, 출범 확정</b> <b>제물포구·영종구</b> <b>서구·검단구</b>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b>이제는 인천입니다</b> <b>2025 APEC INCHEON</b>	
		배포일자	2024년 4월 24일(수) 총 5매		
담당 부서	행정체제혁신과	담 당 자	• 개편기획팀장	김 예 은	☎440-3301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이영란	☎440-3302
	공보담당관실		• 미래정책팀장	유강환	☎440-2381
			• 담당자	김계원	☎440-2133
			• 담당자	김미현	☎440-307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 없앤 인천시 ... 지역 고유특성 회복**  
**- 행정지명은 도시 경쟁력 높이는 가치자원 ... 일제 식민 통치 잔재 극복 -**  
**-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 관광객·기업·투자유치 이끌 것 -**

일찍부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한 행정지명 개명을 추진해 온 인천시가 서구의 명칭 변경 추진을 마지막으로 편의주의적 방위(方位)식 행정지명 종식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와 서구와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중앙부처 등과도 함께 방위식 공공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인천을 특광역시 중 방위 명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영종구가 새로 설치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방위 명칭은 서구만 남게 된다. 남동구의 경우 동녘 동(東)이 아닌 고을 동(洞)을 사용하고 있어 방위식 명칭이 아니다.

2018년 남구가 처음으로 방위식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꿨고, 지난 1월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의 명칭도 바뀌

게 된다. 이로써 서구만 방위식 명칭으로 남게 되는데, 인천시가 방위식 행정지명이 없는 최초의 도시로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區)제 실시에 따라 50년 동안 사용돼 온 남구의 명칭은 2018년 7월 1일 미추홀구로 변경됐다. 남구의 명칭 변경은 기존의 방위식 지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변경한 첫 사례로 비로소 2000년에 걸친 미추홀국\*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장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국 : 고구려를 떠난 비류가 세운 나라

미추홀 : 문헌(삼국사기)상 인천 최초의 지명으로 '물의 고을'의 의미로 해석, 미추홀의 발상지가 당시 남구 문학산 일대로 확인(여지도서)

행정 편의적인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행정 잔재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통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을 시도했다.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위치 등을 사용해 지명을 변경하면서 한국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했다.

그러나 7개 특광역시의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찰서, 교육청 등이 여전히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로 제정해야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명칭 변경은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주민 여론

조사와 명칭 공모 등의 의견조사와 타당성 여부 그 밖에 관련 절차들이 요구된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자치단체의 명칭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가치자원’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차별화할 서구의 새 브랜드는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과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인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행정지명의 중요성과 명칭 변경의 기대효과

행정구역의 명칭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나타내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소속감, 일체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외부인에게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듯 행정구역(혹은 지역) 명칭이 갖는 다중적 의미를 방위개념 명칭이 담아내기란 역부족이다.

한편 장소 브랜딩, 도시 브랜드, 브랜드 네이밍 등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들면서 도시발전 전략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행정구역 명칭 또한 중요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는 실체가 됐다.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관광객이나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탄광촌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9년 하동면과 서면을 각각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으로 명칭을 변경 강원도 영월군의 관광객은 2010년(185만 5,000명) 이후 2013년(373만 1,000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포항시 호미곶면도 명칭 변경(2010년 대보면→호미곶면) 후 전국적 일출 명소로 알려져 연간 25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인천시 남구 또한 2018년 비류백제 전설 등을 토대로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인천 역사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지역 명칭 변경에 따른 효과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인천연구원과 관내 행정기관의 방위식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 중인 인천시는 조만간 서구와 협의해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구역과 기관의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에 맞춰 서구와 행정기관을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붙임> 특광역시 방위식 자치구명 사용 현황

## < 특광역시 방위식 자치구명 사용 현황 >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전국 (25)	6	6	5	4	4
서울특별시(1)	1	-	-	-	-
부산광역시(5)	1	1	1	1	1
인천광역시(3)	1	1	1	-	-
대구광역시(5)	1	1	1	1	1
대전광역시(3)	1	1	1	-	-
울산광역시(4)	1	1	-	1	1
광주광역시(4)	-	1	1	1	1

## < 관련사진 >



▲ 2024년 1월 시청 IDC센터 외벽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